

社 說

대학의 변화와 개혁

-개교 48주년에 부쳐

교육시장 개방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맞이한 48주년 개교 기념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크다할 수 있다. 매년 나름대로 의미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우리학교의 변화 추이와 그 의욕을 고려해 본다면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투영된다.

CRS인중시험, Tea 타임제, 전과제 등등 대학의 가장 중추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와 개혁의 모습들은 우리학교, 아니 다이나가서 교육시장개방 이후 한국대학의 생존 방법을 엿볼 수 있는 몇가지 변화들로서 평가된다.

변화의 필요조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국내적으로는 교육재정확보 문제, 대외적으로는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등 안과 밖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신속성등 몇가지 필요 조건이 존재한다.

타대학 역시 언론에 실릴만큼 파격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변화의 결과 아니, 추후 변화와 개혁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대학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양한 변화와 개혁일수록 막대한 것은 대학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중론이다.

물론 현재 한국대학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이상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교육정책의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와같은 변화의 길 위에서 많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왔으며 나름대로 그 성과물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경희다운 이름의 단결

사회 일부에서는 대학이 직업훈련원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많은 제도적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성취해 나간다는 전제가 보장된다면 이와 같은 비판은 노파심으로서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경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불혹의 나이를 넘어 반세기를 향하여 힘차게 달리고 있다. 다

른 대학보다 역사와 전통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일천하는 우리대학이 현재와같은 규모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어려운 시기, 경희라는 이름으로 단결할 수 있었던 경희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문들의 협조 필수적

이런 의미에서 우리학교의 개교 5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펼치는 '동문찾기 캠페인'은 동문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모교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경희의 발전은 비단 현재 학교에 몰입하고 있는 교수, 학생, 직원 뿐아니라 사회각계에 진출해 있는 동문들과의 긴밀한 협조속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대학은 변화하고 있다. 이와같은 변화 속에서 우리대학이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자와 피교육자 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 제도 변화에 대한 구성원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 등등 많은 요소들이 선결되어야만 한다. 대학간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는 현 시기는 각각의 대학들에게 있어서 개교이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위기는 기회다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시기가 얼마안남은 상황에서 우리대학은 타대학과는 다른 교육에 대한 변신과 제도에 대한 혁신, 각 학과에 대한 특성화를 기반으로 기존 대학의 모습과는 또다른 모습을 구현해야만 할 시기에 놓여있다.

남하는 만큼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결정하는 안일한 자세로는 더이상 이 시기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개교 48주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위기를 논할 수 밖에 없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열정과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소명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길만이 우리대학을 생존케 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 개교 48주년, 대학주보 창간 42주년 기념축사

제2의 르네상스를 열자

새롭게 재도약할 중차대한 시점

세계 문명 중심국 주도할 인재되길

뜻 깊은 개교 48주년을 모든 경희가족과 함께 참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친애하는 경희인 여러분! 미증유의 동족상잔의 쓰라린 상처가 스쳐간 폐허속에서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용지를 세우고 달려온 지 벌써 4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희는 경희가죽정신을 근간으로 '하먼 된다. 해내야만 한다'는 불굴의 경희정신을 창출하여 사회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내었고 세계교육사에 기록될 불멸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1950년대, 우리 경희는 농촌계몽을 봉사활동, 문맹퇴치운동을 선도적으로 전개하였고 1960년대에는 범국민적인 장삼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정부차원의 새마을 운동을 견인하였고 1970년대에는 밝은 사회운동을 통하여

물질만능풍조에 빠져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엔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공포케 함으로써 냉전의 벽을 허물고 희망찬 인류의 신화해시대를 여는데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여 주었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 도덕과 인간성회복을 위한 제2르네상스운동의 횃불을 다시금 높이 치켜들고 새로운 천년을 향한 부푼 희망을 온 인류의 가슴속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전쟁후 60달리에 불과하던 우리의 국민소득이 1만불을 넘어서고 희망찬 동북아시아 세계의 주역국으로 바라보는 이 시점, 또한 동서가 화합하여 새로운 21세기를 설계하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 오로지 국가의 발전과 인류의 안녕을 위해 헌신노력해온 우리 경희인은 그야말로 뿌듯한 보람과 함께 큰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것입니다.

친애하는 경희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처럼 찬란한 우리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롭게 재도약해야할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 우리의 경희정신을 되살려 '21세기 명문경희, 세계 유수의 경희'를 이루는데 우리의 모든 총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2년전에 학과·계열평가, 대학종합평가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또한 작년에 국제대학원 운영교로 선정된 사실들은 우리의 꿈이 결코 꿈으로만 끝나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경희인의 단결력과 굳은 의지 그것이 바로 우리 경희정신이며 새로운 경이(驚異)의 역사를 창조할 값진 자양분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다시 한번 그 동안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 이광재 대학주보 동문회장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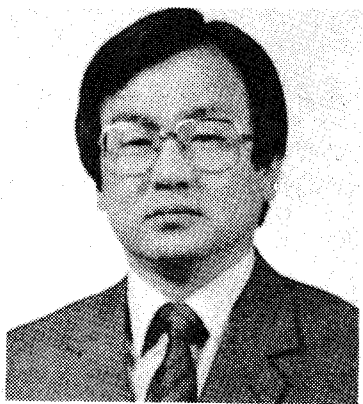
타대학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명문대학

21C 경쟁력 위해 특성화 대학돼야

5월에는 다른 달에 비해서 기념일이 많다. 법의 날, 근로자의 날, 조의 날, 바다의 날 등 사흘에 한번씩 기념일을 맞이하게 된다. 경희학원의 개교기념일(5월 18일)과 대학주보 창간기념일(5월 12일)을 합치면 우리는 모두 열두번의 기념일을 지내게 된다.

5월은 계절적으로 보면 대단히 아름답다. 덤지도 춥지도 않은은 물론 새싹이 움트는 계절로서 산천의 초목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다. 싱그러움 계절이다. 그래서 5월은 젊음이 약속하는 청춘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희망의 계절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계절의 특성이 많은 기념일을 가져오게 했는지도 모른다.

기념일(記念日, 紀念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이든지 역사적인 사실을 후세에 전하여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사실에서 교훈을 후세에 전하여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 보다 나은 내



일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이정표가 되게끔 하는데 그 존재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금년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개교기념일과 창간기념일을 맞이한다. 각각 48주년과 42주년이 된다. 지나는 세월을 회고해 보면 만감이 교차된다. 어려운 시련도 많았고, 값진 영광도 많았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권력의 정치 바람도 적지 않게 맞았다. 그러나 그러한 역

경에 부딪칠 때마다 경희는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일어나서 힘찬 전진과 발전을 거듭하였다. 오늘날에는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명문대학으로 성장하였다. <세계 속의 경희>로 발돋움한 것이다.

현재 우리 한국은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다.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개혁을 통한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교육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본 대학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금년도의 교육개혁의 추진목표를 첫째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둘째 편안하고 쾌적한 캠퍼스 조성으로 설정하였다.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한 다.

21세기 세계 대학가에서 경희가 굳건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대학체제



조영식 박사

〈학원장〉

이제 우리 경희가족 모두는 영광의 개교 50주년을 바라보며 경희의 새소망을 이루고 나아가 21세기 동북아시아를 맞아 우리 한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국으로 우뚝서는데 주

도적인 역할을 다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모든 경희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열린체제로 바뀌어야 하고, 세계 속의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 교육의 수월성, 연구의 수월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대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참여의지가 관건이 된다. 젊음과 패기 발

랄한 조정원 신임 총장을 중심으로 전 구성원이 하나로 뭉치면 세계가 우리러 보는 경희를 반드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개교기념일과 창간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잠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고 황 만 평

김진우



“정말로 믿고 싶지만...”

正道경영·초우량 LG

화학의 목표는 인간입니다

더 아름다운 인간의 삶, 더 질서는 나라-화학의 힘으로 만들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개교 4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화학강국이 미래강국

첨단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에도 모든 산업의 핵심기술은 화학-화학이 앞선 나라가 미래의 새로운 강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21세기 화학강국으로! LG화학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 이 오 렉 유전공학 핵심기술을 응용하여 인공신경세포, 제4세대 합성계 등 첨단의학 신물질개발
정보전자소재 고도의 기술융합 연구로 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 반도체 기조소재 등 개발
석 유 화 학 석유화학 반응수지 및 자동차, 우주항공 분야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최첨단 고기능 신소재 개발
정 립 화 학 무공해 농약, 생활용품 첨가제, 석유화학 중간체 등 고부가가치의 신물질, 신기술 개발
생 활 건 강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제품 연구 개발



LG화학·LG석유화학·LG엘라이드시그널·LG오앤스코닝·LG MMA·(주)실트론